나달, US오픈 4강 안착

나달

남자테니스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33·스페인)이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총상금 5700만 달러·약 690억 원)에서 4강에 올랐다. 대회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리는 나달은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 단식 8강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27·아르헨티나)을 세트스코어 3-0(6-4 7-5 6-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6일 열릴 US오픈 남자 단식 4강 대진은 나달과 마테오 베레티니(23·이탈리아), 다닐 메드베데프(23·러시아)와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8·불가리아)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현역시절 라이벌 소렌스탐·오초아·잉스터와 빅뱅 … 21일 강원도 양양서 '설해원 레전드 매치'

클럽 다시 잡은 박세리 "마음은 선수인데…"

일일 현역 복귀를 앞둔 '골프 여왕' 박세리가 현역시절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맹연습을 하고 있다. 21일 설해원 레전드 매치에서 호스트로 나서는 박세리는 최근 연습장과 필드를 오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4월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처음 열린 여자 대회를 기념해 시타를 하고 있는 박세리. 사진제공 |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골프 여왕' 박세리(42)의 '일일 현역'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0월 뜨거운 눈물 속에서 떠났던 필드.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흐른 가운데 2016리우올림픽에 이어 2020도쿄올림픽 한국 여자골프 올림픽 사령탑으로 변신한 박세리 감독이 전 세계 골프팬들에게 진한 추억을 선물한다.

●필드 복귀가 꺼려졌던 박세리

박세리가 하루 동안 현역선수로 임할 무대는 21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막하는 '설해원 레전드 매치'다. 현역 시절 수차례 정상을 다퉜던 아니카 소렌스탐(49·스웨덴)과 로레나 오초아(38·멕시코)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인 줄리 잉스터(59·미국)와 자웅을 겨룬다. 이들은

3년동안 클럽 잡지 않았던 박세리
"팬들 실망시킬 수 없지" 각오 대단
매주 1~2회씩 필드 나가 실전 훈련
비거리는 괜찮은데 방향은 수정중

21일 박성현(26·솔레어), 이민지(23·호주), 렉시 톰슨(24·미국), 아리야 쭈타누깐(24·태국)과 각기 짝을 이뤄 포섬 매치를 벌인다.

이번 대회는 박세리의 3년만의 복귀전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6년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끝으로 현역 유니폼을 벗은 박세리는 이후 공식석상에서 클럽을 잡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전 이맘때였던 지난해 추석, 박세리는 스포츠동아와 특집 인터뷰에서 "현역시절 '후회 없이 골프를 친 뒤 은퇴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래서 은퇴 후로는 클럽을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필드 역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애증이 깃든 골프와 잠시 이별했던 박세리는 올해 들어 마음을 조금씩 바꾸게 됐다. 4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역사상 처음 열린 여자 대회를 기념해 시타의 영광을 안아 힘찬 티샷을 했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하루 동안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게 됐다.

●구슬땀 흘리는 골프 여왕

3년만의 필드 복귀를 앞둔 박세리는 최근 들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세계적인 레전드들과의 맞대결도 중요하지만,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있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박세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세마스포츠마케팅 홍미영 상무는 5일 "대회 일정이 확정된 뒤부터 박세리 감독이 현역 때처럼 맹연습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매주 1~2회 필드로 나가 실전 감각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홍 상무는 이어 "박 감독이 '마음은 선수 시절로 돌아갔는데 몸은 그렇지 않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비거리는 아직 괜찮지만 타구 방향이 가끔씩 양옆으로 분산되는 모양이다. 그래도 호스트로서 대회를 뛴다는 자체만으로 크게 들떠있다"고 최근 준비상황을 전했다.

4월 오거스타에서의 시타 당시 화끈한 장타를 날려 화제를 모았던 박세리. 과연 공식적으로 치르는 일일 복귀전에선 어떠한 스윙으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까.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어게인 1990" 올드 케이팝이 몰고온 복고 열풍

SBS 유튜브 채널 '케이팝 클래식' 한달만에 구독자수 15만 명 돌파
KBS, 옛 스타와 '가요톱10' 공연

'응답하라! 올드 케이팝!'

'복고' 바람이 불고 있다. 잊을 만하면 때때로 한번씩 찾아와 추억의 감성을 자극한다. 1990년대 인기곡들이 그 매개다. 올해 봄부터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프로그램들이 재조명받고, 1세대 아이돌 가수들이 재결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과 같은 현상이다.

현재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는 SBS '케이팝 클래식'이 화제다. 10대 아이돌 가수 위주로 출연하는 지금의 '인기가요'가 아니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방송한 내용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공개해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SBS가 지난달 6일부터 공개한 유튜브 채널 '케이팝 클래식'은 4일 기준 구독자수 15만 명을 돌파했다.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팬들은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이 넘는다. 디지털시대에 맞게 채팅창까지 만들어놓고 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다. 평일 낮 시간에도 많은 팬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탑골 가요' '온라인 탑골공원' 등으로도 불린다.

과거 히트곡을 듣는 재미에 그치지 않고, 핑클, 태사자, UN, 샵, 롤러코스터, 샤크라, 소찬휘 등 가수들의 무대는 물론 당시 유행한 춤이나 의상을 보며 추억을 회상한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그땐 그랬지"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당대 인기 스타 안재모, 김민희, 김희선, 전지현 등의 앳된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재미 중 하나다.

이에 앞서 KBS도 '어게인 가요톱10'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40~50대 팬들을 꾸준히 사로잡고 있다. KBS는 온라인에만 그치지 않고 21일과 22일 강원도 춘천 공지천에서 '가요톱10' 공연을 열기로 했다. 당시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 기대 기획하게 됐다. 진행은 1990년대 '가요톱10' MC였던 손범수 아나운서가 맡고 가수 김원준, 박미경, 현진영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5일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한국과 조지아의 친선경기는 신문 제작관계상 싣지 못합니다. 경기결과는 sportsdonga.com에서 확인하세요.